잡종 양모종

이 품종의 양모종은 종종 중번수 양모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번수종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잡종 양모종으로 한 단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한 단원을 다시 만들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양종은 지난 50 여 년간에 걸쳐 메리노 또는 랑브예 메리노(rambouillet merino)종과 장모종을 교배하여 만들어낸 고정된 양종이다.

1. 코리데일(Corriedale)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양종이 바로 이 코리데일이다. 이 품종은 뉴질랜드에서 개량하여 고정시킨 모·육 겸용종으로 링컨 수컷과 메리노 암컷을 교배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 세계 목양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종이다.

장섬유종과 메리노종의 장점들을 겸비한 이 코리데일종은 식욕이 왕성하며, 눈 덮인 험준한 산지에서부터 풍요로운 개량된 목장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육되고 있다. 양모는 메리노종 보다는 굵지만, 장모종 양모보다는 가늘다.

1880년 뉴질랜드의 남섬의 North Otago란 곳의 Corriedale Estate 목장의 James Little이란 사람이 개량한 양종으로, 이 목장의 이름을 따서 Corriedale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코리데일 양의 양모의 특징은 촉감이 부드럽고 크림프가 균일하다. 플리스 전체의 균제도가 좋다. 색모가 없고 광택도 좋으며 항장력이 크다.

섬도는 원래 28~32 ㎛이었으나, 근래에는 몇 번의 개량 끝에 26~30 ㎛이 중심이 되어 있다. 양모의 길이는 125~150mm, 한 마리당 연간 수모량은 4.5~5.5 kg이다.

2. 컬럼비아(Columbia)

미국 자체에서 뉴질랜드의 코리데일을 모방하여 만든 양종으로, 링컨 수컷에다 랑브예 메리노 암컷을 교배시킨 양종으로 코리데일만큼 중요한 양종이다.

미국 농무성이 1912년 이후 미국 와이오밍 주 Laramie에서, 그리고 1917년 이후 아이다호 주 Dubios에서 각기 랑브예 메리노 암컷에 링컨 수컷을 교배하여 혼혈종을 만들고, 근친번식(inbred)을 통하여 이 양종이 탄생하였다. 미국판 코리데일인 셈이며, 모든 특성이 코리데일과 비슷하다. 미국 내에서 널리 사육되고 있다.

3. 로멜데일(Romeldale)

이것도 미국에서 만들어낸 양종으로, 코리데일과 비슷한 양종으로 별명을 Romnelet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윌턴이라는 곳에서 A. T. Spence에 의해 개량된 양종으로, 랑브예 메리노 암컷에 롬니 마시 수컷을 교배시켜 만든 것이다.

양모는 섬도 26~28 ㎛, 길이는 80~100 mm, 연간 수모량은 3.5~4.5 kg이다.

4. 폴워즈(Polwarth)

호주의 메리노와 순종 링컨종을 교배하여 만든 양종이다. 호주에서는 보통 컴백(Come back)이라고 부른다. 1880년 이후 이 양종을 고정시켰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명성이 커졌고, 이러한 양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모여 폴워즈란 이름으로 등록을 하였다.

이 양종은 엄밀히 따져서 메리노 혈통 3/4과 링컨 혈통 1/4 비율로 혼혈되어 있어, 코리데일보다도 메리노의 혈통이 많으므로 양모의 섬도가 가늘어서 보통 24~26 ㎛, 길이는 100~125 mm에 이른다. 광택이 좋고 부드러우며, 수모량도 5 kg 정도로 많다. ♣ (공석붕)

<Corriedale>

<Columbia>

<Romeldale>

<Polwarth>